

5·18 기념재단, 5·18 국제화 적극 나선다

올해 국제연구원 신설... 학술대회·논문 공모·번역 출판 등 계획
국내외 활동가 초청 아카데미... 재단 29년 '국제화 백서' 발간
글로벌민주인권사업 지속하고 시민 참여·소통 사업 확대키로

내년 재단 설립 30주년을 앞둔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이 올해 5·18민주화운동을 국제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국제연구원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재단은 5일 광주시 서구 차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재단이 시행하는 5월 행사를 비롯한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먼저 올해 5·18국제연구원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5·18국제연구원은 현 정부가 내건 '5·18자유민주인권 국제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제학술대회와 논문 공모, 번역 출판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학술적으로 5·18을 연구하는 기구다.

5·18국제연구원은 5·18기념재단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서 연구실장 1명, 사업 담당 3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 인원은 연구 상황에 따라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단은 오는 10월 2일까지 조선훈 사학협력단을 통해 5·18국제연구원의 운영 계획과 방향성을 연구하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국가 예산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5·18 국제연구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후 재단은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과 연계해 포럼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단은 국내외 활동가를 초청해 5·18사적지 등을 탐방하는 '5·18아카데미', 지난 29년간 재단의 5·18 세 계화 활동과 향후 활동을 점검하는 국제

화백서 발간 등 사업도 진행한다.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국제적인 연대가 긴급히 필요한 현장에 도움을 주는 글로벌민주인권사업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오월길'도 새단장을 할 계획이다. 헤드폰을 끼고 오월길을 걸으며 각종 사적지에서 '오디오 공연'을 즐기는 '오디오 시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오월길 안내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5·18민주광장에서 옛 직접자병원, 사적공원 전망대, 광주공원, 광주천, 양동시장 등을 잇는 새로운 오월길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 사업도 준비했다. 5·18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하는 민주성지순례나 역사문화답사 등이 올해도 진행된다.

전국 교사·교육활동가와 함께하는 연수 프로그램 '오월학교', 전국 동네 책방 55곳에서 이뤄지는 '우리동네 오월학교'를 운영하고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e-러닝 콘텐츠 제작·보급 등 교육활동도 병행한다. 5·18장학사업의 경우 기존 청소년·대학생뿐 아니라 탈시설 청소년, 아시아 지역 학생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또 5·18 왜곡대응백서, 청소년구술집, 5·18구술 자료·책 영문번역서 등 출판 사업도 올해 계획에 포함됐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43년만의 사죄 등으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5·18정신계승 및 기념사업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시민 참여와 소통을 늘리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살려 5·18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해외 유학생 활동가 양성은 '삐걱'

재단 "시 예산 감축에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젝트' 신입생 못 받아"

7년동안 해외 유학생을 NGO 활동가로 양성해 온 5·18기념재단(이하 재단)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젝트(GNMP)'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 예산이 대폭 감축돼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면서다.

재단은 올해 예산 부족 문제로 GNMP 신입생을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GNMP는 재단과 광주시, 전남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해외 유학생들에게 전남대 글로벌 NGO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지원해주고 NGO 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해마다 3-4명 학생을 선발해 2년 동안 학비·기숙사비·식비·활동비(체재비) 등을 지원해 준다.

지난 2016년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등 4명

유학생을 시작으로 7년 동안 16명이 GNMP를 통해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도네시아 학생 등 7명이 재학 중이며 오는 8월 및 내년 2월에 졸업할 예정이다.

재단에 따르면 해마다 광주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받던 사업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9720만원에 불과했다. 재단은 이 예산으로는 당장 재학생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며 광주시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 지난달 24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다. 다만 총 1억2000여만원으로는 도저히 신입생을 받을 형편이 안 된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광주시의회에서 당장 성과가 없고, 졸업생이 반드시 활동가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업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 재단 설명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매년 지원 예산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억5000만원, 2019년 1억3500만원, 2021년 1억8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진 예산을 통보받았다.

재단은 이 사업이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당장 성과를 독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NGO 활동을 시작하고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예산이 줄어들어 민주화 특강 등 다른 활동을 아예 못했는데, 이전 재학생 유지조차 못 할 수준이 됐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5·18의 국제화와 세계적인 민주화 흐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당장 성과만 독촉하니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심정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 관심 커졌다 동국대 역사학과 학생들이 5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앞에서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광주 방문 이후 5·18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록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니명주 기자 mjna@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10일부터 광주 머문다

사죄 행보 이어갈 듯

전두환 손자 전우원(27)씨가 당분간 광주에 상주하면서 사죄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6일로 예정된 5·18 공법단체와 특진사동지회의 국립현충원 참배에 전씨가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부상자회는 전씨와 주고 받은 문자를 공개하고 전씨의 보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씨가 이날 부상자회에 보낸 '입장문'에는 그가 오는 10일부터 광주에서 상주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입장문에서 전씨는 "다음주 월요일 4월 10일부터 광주에 내려가서 상주하며 5월 공법 3단체 분들과 함께 선량한 광주시민분들과 5월 어머니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저와 저의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한이 깊어 잘 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게 찾아뵙서 죄송하고 어찌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시길 광주 시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상자회가 요청한 국립현충원 참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한을 다 풀어드리고 나서 5월의 아픔을 같이 겪으신 모든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추후에 현충원에도 방문하여 화합의 의미의 참배를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거 논란 '검은비' 5·18기록관으로 이전

철거 논란이 일었던 옛 전남도청 상무관의 '검은비' 작품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가게 됐다.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에 전시돼 있는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를 상무관에서 400여m 떨어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으로 기증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은비 작품은 다섯조각으로 분리돼

기록관 수장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작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제33주년 5·18기념행사 상무관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시한 설치미술 작품인 검은비는 상무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정 작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철거를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2월 '검은비 작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까지 열렸다. 광주시는 검은비 존치 모임과 두 차례의 실무 협상 등을 통해 보관방법, 기증방안 등을 협의했다. 추후 재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거나 계획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옥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작품을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 + 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배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3년 계묘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